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5호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Gyeonggi Daily Report - 5
Data as reported by 24 February 2020

<http://www.gidcc.or.kr/gypd-type/covid-19-daily-reports/>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5호 주요 내용

국외 발생현황

국내 발생현황

국내외 이슈

국내 정책 동향

-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 성명서
-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성명서

참고자료

- COVID-19 발생 국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모음
-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 활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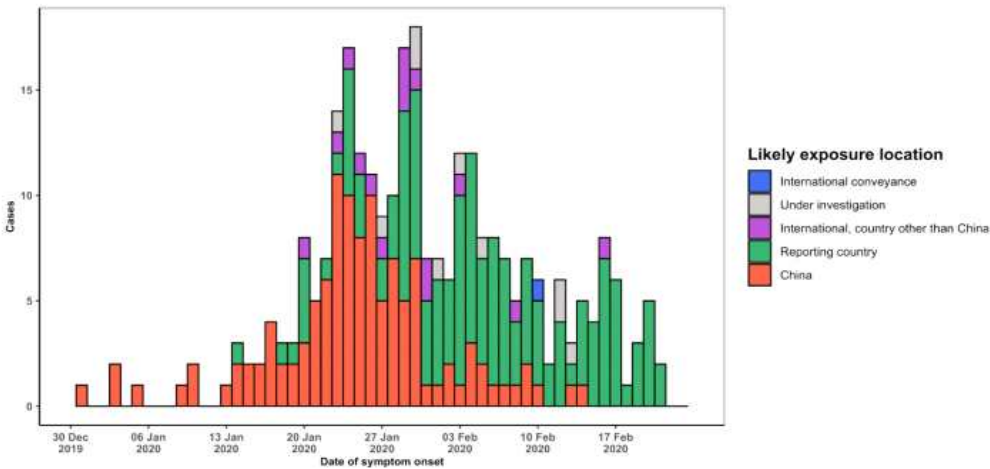
국외 발생현황

□ 전세계 (2020. 2. 24. 10시 기준)

- 전날보다 377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79,149명(전일 대비 0.5% 증가) 환자 보고
- 이 중, 2,471명 사망하여 치명률은 3.1%

표1. 국가별 코로나(COVID)-19 발생현황(2020.2.24. 기준, 위키피디아)

구분	합계	중국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폴	홍콩	이란	미국	태국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독일	베트남	UA E	영국	프랑스	마카오	캐나다	필리핀	인도	러시아	스페인	이라크	이스라엘	레바논	스웨덴	벨기에	캄보디아	이집트	핀란드	네팔	스리랑카	일본 크루즈
환자	79,149	76,936	763	155	146	89	74	43	35	35	28	22	22	16	16	13	13	12	10	10	3	3	2	2	1	1	1	1	1	1	1	1	1	691	
사망자	2,471	2,444	7	3	1	0	2	8	0	0	1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3	



Note for figure 2: Of the 1769 cases reported outside China, 32 were detected while apparently asymptomatic. For the remaining 1737 cases, information on date of onset is available only for the 284 cases presented in the epidemiologic curve.

그림1. 여행력 및 증상발현일 기준 중국 외 지역 유행곡선(2020.2.23. 기준, 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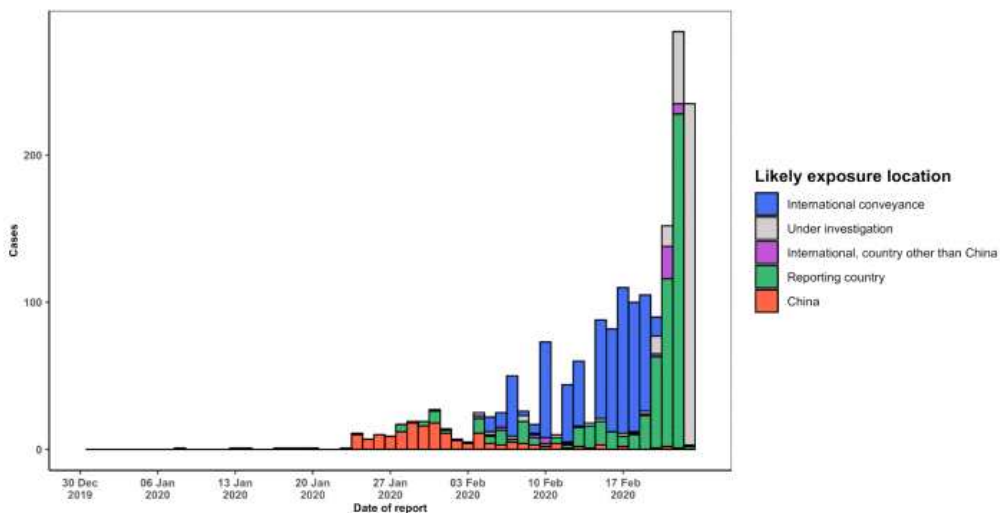


그림2. 추정노출지역 및 보고일 기준 중국 외 지역 유행곡선(2020.2.23. 기준, WHO)

□ 중국

- 전날보다 18명 추가 환자 보고되어 76,936명(전체의 97.2%) 환자 보고
- 지역별로는 후베이성(Hubei) 64,084명(사망 2,346명 포함), 광둥성(Guangdong) 1,342명(사망 6명 포함), 허난성(Henan) 1,271명(사망 19명 포함), 저장성(Zhejiang) 1,205명(사망 1명 포함), 후난성(Hunan) 1,016명(사망 4명 포함) 순으로 발생

※ 중국 내 지역별 발생현황은 WHO Situation Report(2.23.) 참조

□ 중국 외 지역

- 1,522명 환자 보고(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제외)
- 그 외 32개 국가 및 지역에서 320명의 추가 환자가 보고되어 1,522명 환자 보고
320명의 207명은 한국에서 보고된 환자임

표2. 국외 코로나(COVID)-19 발생현황

구분	중국	중국 외	
		31개 국가 및 지역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신규 환자	18	320	0
누적 환자	76,936	1522	691
전날 대비 증감	0.02% 증가	21.1% 증가	-

국내 발생현황

□ 전국 (2020. 2. 24. 10시 기준)

※국내 발생현황은 오전 10시에 배포되는 오전 9시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전일 대비 207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보고되어 총 763명(18명 격리해제)의 환자 보고
* 대구 155명, 경북 16명, 경기 12명, 경남 9명, 서울 4명, 부산 8명, 광주 2명, 대전 1명
- 3건 사망 추가 발생(38번째 환자, 1963년생 여자,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사례, 코로나19와의 사망 관련성 조사중/55번째 환자, 61년생 남자 청도 대남병원 사례, 사망 관련성 조사 중/ 286번째 환자, 58년생 남자, 청도 대남병원 사례, 사망 관련성 조사 중)

표 3. 지역별 코로나(COVID)-19 신규환자 발생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경북	경남	대전	합계
소계	4	8	155	2	12	16	9	1	161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1	127	2	4	10	5		149
기타 (조사 중 포함)	4	7	28		8	6	4	1	58

- 오늘까지 총 25,577명에게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7,520명이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고, 8,057명이 검사 진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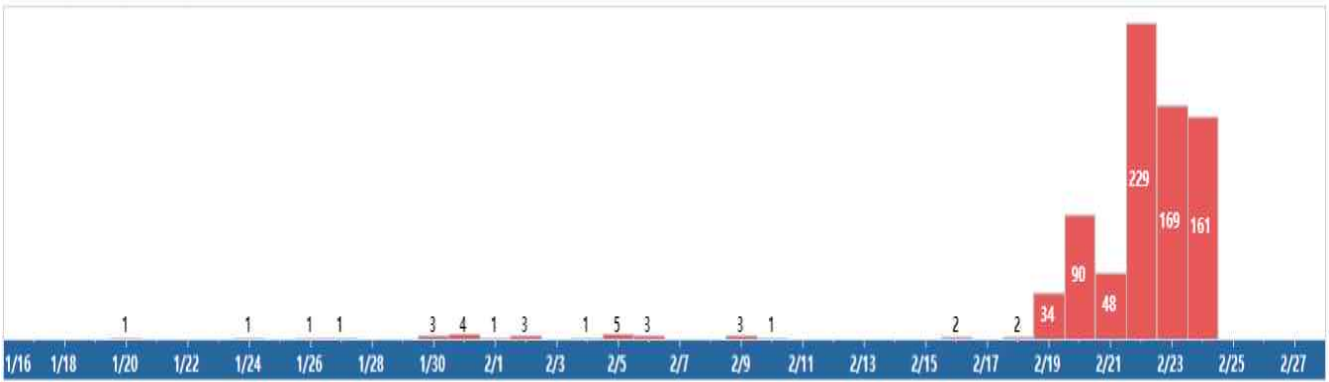


그림3. 코로나(COVID)-19 발생현황 추이(20.2.24.9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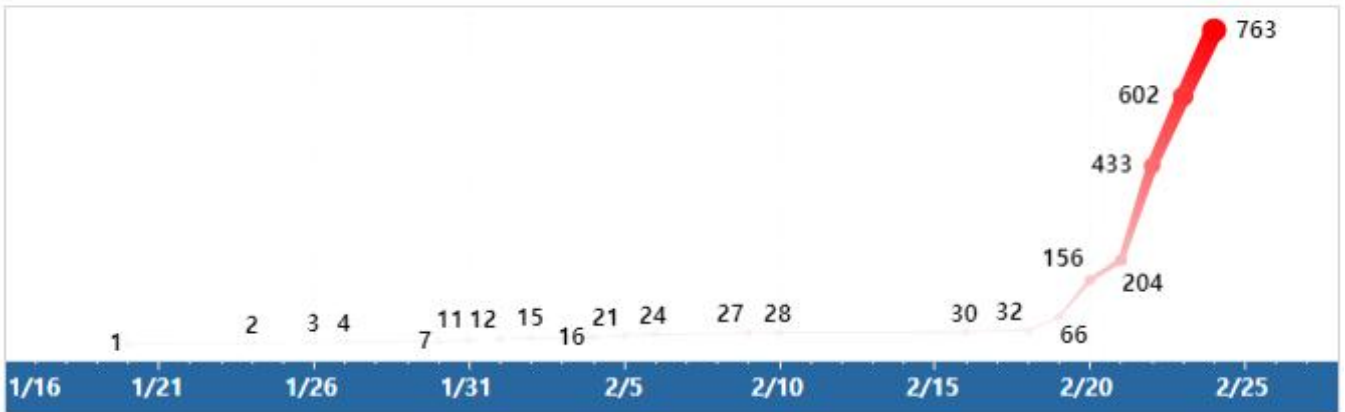


그림4. 코로나(COVID)-19 발생현황 누적(20.2.24.9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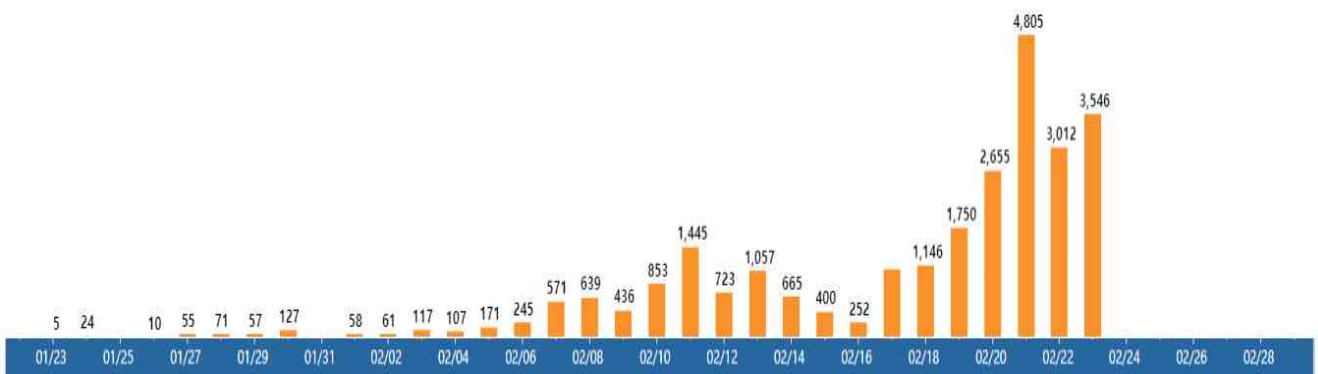


그림5. 코로나(COVID)-19 검사현황 추이(20.2.24.9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그림6. 코로나(COVID)-19 검사현황 누적(20.2.23.9시 기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 경기도 확진환자 현황(2020. 2. 24. 10시 기준)

○ 확진환자 : 25명(7명 퇴원) *전국 602명(18명 퇴원/5명 사망)

- 3번환자(확진일 1.26.): 54세 남성, 내국인, 중국 우한시 거주, 설 명절 본가(고양시) 방문 [명지병원] **퇴원 2.12.**
- 4번환자(확진일 1.27.): 55세 남성/내국인, 중국 우한시 방문, 평택시 [분당서울대병원] **퇴원 2.9.**
- 12번환자(확진일 2. 1.): 48세 남성/중국인, 일본 경유 입국, 부천시 거주 [분당서울대병원] **퇴원 2.18.**
- 14번환자(확진일 2. 2.): 40세 여성/중국인, 12번 환자 부인, 부천시 거주 [분당서울대병원] **퇴원 2.18.**
- 15번환자(확진일 2. 2.): 43세 남성/내국인, 중국 우한시 상업, 수원시 장안구 거주 [국군수도병원]
- 17번환자(확진일 2. 5.): 38세 남성/내국인, 싱가포르 경유 입국, 구리시 거주 [명지병원] **퇴원 2.12.**
- 20번환자(확진일 2. 6.): 42세 여성/내국인, 15번 환자 처제, 수원시 거주 [국군수도병원]
- 25번환자(확진일 2. 9.): 73세 여성/내국인, 중국 여행 아들부부 동거, 시흥시 거주 [분당서울대병원] **퇴원 2.22.**
- 26번환자(확진일 2. 9.): 51세 남성/내국인, 25번 확진에 따라 격리검사, 시흥시 거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27번환자(확진일 2. 9.): 37세 여성/중국인, 25번 확진에 따라 격리검사, 시흥시 거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28번환자(확진일 2.10.): 30세 여성/중국인, 3번 확진에 따라 격리검사, 고양시 [명지병원] **퇴원 2.17.**
- 32번환자(확진일 2.18.): 10세 여성/내국인, 20번 환자 딸, 수원시 [분당서울대병원]
- 140번환자(확진일 2.20): 88년생 여성/내국인, 31번 확진자 동선 일치, 김포시 [명지병원]
- 162번환자(확진일 2.21): 87년생 남성/내국인, 31번 확진자 동선 일치, 김포시 [명지병원]
- 246번환자(확진일 2.21): 83년생 여성/내국인, 31번 환자 접촉자, 부천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347번환자(확진일 2.22): 96년생 남성/내국인, 싱가포르, 말련 방문, 2.7.입국, 부천시 [명지병원]
- 360번환자(확진일 2.22): 59년생 남성/내국인, 시초확진자 이천 직장동료, 이천시 [분당서울대병원]
- 361번환자(확진일 2.22): 99년생 남성/내국인, 군인, 대구 방문(2.10~2.14), 포천시 [국군수도병원]
- 362번환자(확진일 2.22): 55년생 남성/내국인, 서울 택시기사, 30번 환자 접촉자, 안양시 [안성의료원]
- 확인중(확진일 2.22): 69년생 남성/내국인, 360번 접촉자,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확인중(확진일 2.22): 59년생 여성/내국인, 246번 환자 동거인, 부천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확인중(확진일 2.23): 97년생 남성/내국인, 군인, 2.15~2.17 대구 방문자, 평택시 [이천병원]
- 확인중(확진일 2.23): 80년생 남성/내국인, 246번 환자 남편, 부천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확인중(확진일 2.23): 53년생 남성/내국인, 대구 거주자, 수원 팔달구 보건소 선별, 수원시 [국군수도병원]
- 확인중(확진일 2.23): 66년생 남성/내국인, 대구 거주자, 김포 보건소 선별, 김포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그림7. 경기도 코로나(COVID)-19 확진환자 현황(20.2.24.기준, 경기도청)

국내외 이슈

□ 국외

- 전세계 '코리아 포비아' 14개국 한국인 입국제한
- 미국, 대만은 한국 여행경보 2단계로 상향
- 이탈리아 115명 확진 10여개 도시 봉쇄
- 이란 8명 코로나 사망, 伊 132명 확진... 커가는 판데믹 공포
- 中 확진자 감소세에도 우한 여전히 심각

□ 국내

- 확진자 '폭증' 600명 넘어...정부, 위기경보 '심각' 격상
- 신종플루 이후 11년만에 최고 경보, 총리 지휘 중대본 설치
- 사망자 6명, 대구·경북 495명 확진, 신천지 관련 329명
- 철도 운영 제한, 외부활동 자제 권고...신천지 시설 임시 폐쇄
- 병원내 감염 최악사태 오나, 확진자 나온 병원 잇단 폐쇄

국내 정책 동향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대비·대응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 대정부·국민 권고안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염원하는 우리의 바램과 방역당국의 총력 봉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의 정체가 속속 밝혀짐에 따라 이제부터는 더욱 정교한 대응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새로운 감염병이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감염병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보다 훨씬 치명적인 사스(SARS)와 메르스(MERS)를 극복하였으며, 코로나19보다 훨씬 전염력이 높은 신종플루도 백신을 개발하여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코로나19의 임상적 특성을 종합하면, 2월 20일 현재 중국의 후베이성은 3.3%의 치명률을 보이지만 후베이성 이외 지역(0.7%)과 중국 외 발생 국가(0.9%)는 1% 미만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의 치명률 0.05%보다 높지만, 사스의 10%, 메르스의 30%보다는 크게 낮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아 일반 감기와 유사하고, 이 시기에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많아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아주 빠르고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만성질환자(심장병, 당뇨, 호흡기질환, 고혈압, 암 등)와 같은 취약집단에서는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보고에서도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환자의 30%와 사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은 경미하면서, 전염력이 높은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금 32여개 국가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중국뿐 아니라 인근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확진자 발견과 접촉자 격리 등 차단 중심의 봉쇄전략(1차 예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전략(2차 예방)의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라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방역의 목표와 전략을 수정해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서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정부는,

첫째, 지금까지의 봉쇄전략에서 효율적인 피해 최소화 (완화)전략으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방안을 점검하고,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방역활동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로 확산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 의료전달체계를 시급히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정상적 진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노출원을 파악해서 접촉자 관리에 집중하는 기존 전략은 현재 상황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력한 이동제한과 함께 구체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환자들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발열-호흡기 선별진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지정 및 지원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응급환자, 노인, 만성질환 환자의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한 정보를 국민들과 빠르게 공유하며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위기소통활동을 대폭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 감염병 전문가,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상시적 대화 채널을 다각적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불안에 위축되기보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감염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아이들이나 학생, 직장인은 진단서가 없어도 공결이나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병가를 쓰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권이 곧 방역임을 인식하고, 취약계층, 외국인, 장애인 등도 코로나19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또 한 번의 위기가 우리 사회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모두의 일상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이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료현장의 의료진과 지역의 방역 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노력을 믿고 성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평소 손을 자주,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 기침이나 목 아픔, 코막힘이나 콧물 등의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일반 감기약을 드시면서 4-5일 경과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계속된다면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1339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증세가 가벼운 환자는 반드시 큰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경미해도 증상 발생 초기에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증상 발생 이후 5일 이상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이에 따른 결석이나 병가를 학교와 직장에서 충분히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성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평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을 삼가시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학생들 중에서 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추운 날씨이지만 학생들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에 극히 소수라도 일탈 행위가 반복된다면 그 어떤 방역망으로도 이 위기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차분하게, 전 사회적 역량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갑시다!!

2020년 2월 22일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한국역학회

2.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현실화에 따른 대한의사협회의 긴급 방역체계재정비 제안

- 고령환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하여 중증·사망환자 최소화해야
- 국공립의료기관 및 보건소가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 전담, 의료기관 이원화
- 의원급과 중소병원 내원 의심환자는 상시이송-의뢰체계로 신속하게 분리
- 위험지역 입국제한 필요성은 여전, 방역체계 재정비할 시간 필요

역학적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잇단 코로나19 확진으로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1차 방역의 실패를 선언하고 지역사회 감염 현실화에 따른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오늘날 1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추가 확진자 13명 가운데 11명이 31번 환자와 접촉한 신천지예수교 신도로 알려져 우려했던 지역사회에서의 슈퍼전파자 출현이 현실화되었고 서울 성동구에서 확진된 환자는 역시나 여행력과 확진자 접촉력이 없는 전형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입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와 특별한 치료 없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무증상 또는 경증을 거쳐 회복되었을 감염사례까지 감안하면 현 상태 역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의심환자를 추적, 관리하여 환자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피해를 최소화, 즉, 중증으로의 진행이나 사망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증에 취약한 나이가 많은 환자,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자, 폐 기능의 저하가 있거나 급성 호흡기 감염증에 취약한 천식·만성폐쇄성 질환 등 호흡기질환자의 보호가 급선무입니다. 특히, 여건상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은 이들 고위험 환자가 내원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하면서 감염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발열 또는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우선적으로 선별진료가 가능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여 고위험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하여야 합니다.

또, 현재의 선별진료소만으로는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많은 환자들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보건소를 포함, 지방의료원과 같은 국공립의료기관을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전담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과 일반진료 의료기관으로 이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확보하고 있는 의료진, 시설, 병상 등 모든 진료역량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00%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선별진료가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가 선별진료기관 또는 전담진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만약 진료 도중 의심환자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자를 검사가 가능한 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 의뢰할 수 있는 상시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하여온 위험지역,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을 거듭 촉구합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관건은 중국의 발병 추세입니다. 중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한, 국내의 대응만으로 이 사태가 진정되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체계의 신속한 재정비를 위해서도 감염원을 차단하여 검역을 위한 자원의 투입을 효율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진과 국민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입국제한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입니다.

오늘 여러명의 환자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5개의 대표적인 대형병원 가운데 현재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3개 병원 응급실이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특히, 경북대와 영남대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3개 병원 외에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역시 현재 의심환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진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대구지역에서 중증의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처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도 오늘 한양대병원 응급실이 폐쇄된 상태이고 부산에서는 해운대백병원 응급실이 폐쇄되었습니다. 불과 10여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 사이에 국내 대표적 병원의 응급실들이 연달아 폐쇄된 것입니다.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 건강에 대한 매우 큰 위협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전 의료기관을 이원화하여 코로나19에 전력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현재까지도 여전히 일반진료나 보건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보건소들은 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방역 시스템의 재정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 의료계의 의견에 이제는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9일
대한의사협회

3. [성명서]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신청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의료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료 현장의 제언)

대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환자가 300명을 넘어섰다. 며칠 사이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대구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다. 정부가 대구를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먼저 최일선에서 ‘코로나 19’와 싸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보건당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진 환자 발생 전후 대구시의 대응을 보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등 사전 대비가 너무나 부실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50만이 사는 대구의 국가 지정 음압 병실은 고작 10개뿐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 병원도 사실상 대구의료원 하나뿐이다. 그마저 병상 규모가 작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접촉자를 확인하고 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역학 조사관도 대구에는 단 한 명뿐이다.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는지도 모른다. 경기도가 기존 6명 역학 조사관에 민간 역학 조사관 6명, 공중보건의 12명을 충원하며 이번 ‘코로나 19’ 유행에 대비한 것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 첫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대구시의 사전준비 역시 너무나 안일했다. 환자 급증에 대비한 병상 확보 계획조차 세우지 않아 많은 확진 환자가 병원에 입원조차 하지 못했다. 부랴부랴 대구의료원과 민간병원인 대구동산병원의 기존 병상을 비우기로 했지만, 너무나 늦은 결정이었다. 이런 능력 대응 때문에 두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이 갑자기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해당 병원의 혼란 역시 적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대구시는 ‘코로나 19’의 지역 내 광범위한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적 물적 자원은 신속히 정부에 요청해야 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시민들 역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신종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경인의협)도 ‘코로나 19’로 인한 우리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먼저 비상 상황에 맞는 ‘지역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과 상황은 지역의 전문가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 전문가, 예방의학 전문가, 지역의 병·의원의 실무자, 시의회 그리고 보건 당국의 실무자들이 현재 비상 상황에 맞는 논의의 틀을 만들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환자가 더 급증할 것에 대비해 병상 추가 동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겨우 확보한 병상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에 추가 병상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음압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환자의 중증도를 기준으로 입원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위중한 환자는 정부와 다른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다른 지역의 음압 병상으로 이송해야 한다.
3.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인력 및 물자의 부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동원 가능한 공중 보건 의사를 미리 파악하고 부족할 경우 민간의료기관의 인력 지원도 요청해야 한다. 감염병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민간 역학 조사관을 선발해 역학조사에 나서야 한다.
4. 1차 진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에도 차질이 없도록 ‘코로나 19’ 의심 환자

와 일반 질환 환자의 진료를 구분하는 ‘이원화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만 전담하는 ‘안심 선별 진료실’을 지역별로 추가 설치하고 선별 검사 가능 여부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홍보해야 한다. 이곳에서 확진된 환자는 입원 치료가 가능한 거점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입원 환자가 있는 중소 병원도 자체 검체 채취를 통한 신속한 ‘코로나 19’ 검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5. 심 뇌혈관계 응급환자와 중증 외상 환자 등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 의심 환자’ 내원을 이유로 한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폐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선별 진료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상급 병원 응급실, 보건소, 병·의원 등의 폐쇄 및 진료 재개 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게시하고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6.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장애인, 노숙인, 쪽방 거주민, 이주노동자 등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경제적 부담이 되는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보호 물자는 지원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무료급식소’, ‘무료 진료소’ 등의 운영 중단으로 노숙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이 영양결핍에 빠지거나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신종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는 타인에 대한 ‘혐오’를 불러오기 쉽다. ‘공포’와 ‘혐오’는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를 숨게 만들어 방역과 치료를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시민들이 과장된 정보로 공포를 느끼거나 왜곡된 정보로 환자에 대한 혐오를 갖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 19’에 대해 시민들과 언제라도 소통할 수 있는 ‘24시간 콜 센터’의 운영도 한시적으로 필요하다.

8. 선별 진료소 및 지역 거점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충분한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감염 예방 교육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거점병원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감염으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있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9. 지역의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의 시설을 개선 및 확충하고 의료 인력도 충원해야 한다. 국가 지정 음압 병실도 더 설치하고 역학 조사관도 충원해야 한다.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가장 행복한 의료 특별시 ‘메디시티 대구’라며 자랑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확산 앞에 그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의료를 이용해 돈을 벌 궁리만 하고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 공공의료의 확충’을 외면해온 대구시가 오늘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메르스의 교훈’의 교훈은 잊은 채 ‘의료영리화의 길’로 역주행하는 정부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이번 ‘코로나 19’ 확산이 주는 뼈아픈 교훈을 새기고 지역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구시가 발 벗고 나설 때 진정한 ‘메디시티 대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멋진 신청사’가 아니라 감염병 위기에도 시민들의 생명을 굳건히 지켜내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다.

2020.2.23.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고자료 1.

COVID-19 발생 국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모음 (2020.02.22.기준)

■ 이용 방법

- 주로 정부 홈페이지이나 정부가 아닌 경우도 있음
- 인터넷 번역기(예, 구글 크롬 번역)를 이용하면, 영어/한글로 내용을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영어 번역이 더 자연스러움
- 영어사용 국가가 아닌 국가의 홈페이지에, 따로 영문 페이지가 있더라도 해당국 언어 쪽으로 들어가서 번역하여야 더 많은 정보가 나옴
 - 홍콩, 독일 등은 내용 거의 동일
- 해당국 언어로만 되어 있으며 PDF 파일로 제공된 정보는 온라인 pdf 파일 번역 프로그램으로 번역 가능
 - 단, 그림 파일로 되어 문자인식이 안되면 불가능

(2020.02.22 발생환자수 순)

국가	주소
일본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64708_00001.html
싱가포르	https://www.moh.gov.sg/covid-19
홍콩	https://www.coronavirus.gov.hk/eng/index.html
미국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태국	https://ddc.moph.go.th/viralpneumonia/index.php
대만	https://www.cdc.gov.tw/
말레이시아	http://www.moh.gov.my/index.php/pages/view/2019-ncov-wuhan
이탈리아	http://www.salute.gov.it/nuovocoronavirus
호주	https://www.health.gov.au/news/health-alerts/novel-coronavirus-2019-ncov-health-alert
이란	http://behdasht.gov.ir/ (접속이 잘 안되고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임. 관련 해외 뉴스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함)
독일	https://www.rki.de/DE/Home/homepage_node.html
베트남	https://ncov.moh.gov.vn/web/guest/trang-chu
프랑스	https://solidarites-sante.gouv.fr/soins-et-maladies/maladies/maladies-infectieuses/coronavirus/coronavirus-questions-reponses
아랍에미리트	https://gulfnnews.com/world/coronavirus (정부 아닌 언론사이이고 COVID-19 페이지 따로 제공)
마카오	https://www.ssm.gov.mo/apps1/PreventWuhanInfection/ch.aspx#clg17458
캐나다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html
영국	https://www.gov.uk/guidance/wuhan-novel-coronavirus-information-for-the-public
인도	https://mohfw.gov.in/node/4904
필리핀	https://www.doh.gov.ph/2019-nCoV
러시아	https://www.themoscowtimes.com/tag/coronavirus (정부 아닌 언론사이고 tag로 관련기사만 나옴)
스페인	https://www.mscbs.gob.es/profesionales/saludPublica/ccayes/alertasActual/nCov-China/home.htm
이스라엘	https://www.health.gov.il/English/Topics/Diseases/corona/Pages/default.aspx
레바논	https://www.moph.gov.lb/en/Media/view/25526/ncov-2019
스웨덴	https://www.folkhalsomyndigheten.se/the-public-health-agency-of-sweden/communicable-disease-control/novel-coronavirus-2019-ncov/
벨기에	https://epidemiologie.wiv-isp.be/ID/Pages/2019-nCoV.aspx
캄보디아	https://cambodianess.com/article/cambodias-only-confirmed-coronavirus-patient-has-recovered-says-ministry-of-health (정부 홈페이지인 http://moh.gov.kh 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며, 이 링크는 확진환자관련 기사임)
이집트	https://egyptianstreets.com/2020/02/14/breaking-egypt-reports-first-case-of-coronavirus/ (정부 홈페이지인 http://www.mohp.gov.eg/ 는 연결이 잘 안되며, 이 링크는 확진환자관련 기사임)
핀란드	https://thl.fi/en/web/infectious-diseases/what-s-new/wuhan-coronavirus-latest-updates
네팔	https://dohs.gov.np/ne/
스리랑카	http://www.health.gov.lk/moh_final/english/index.php

참고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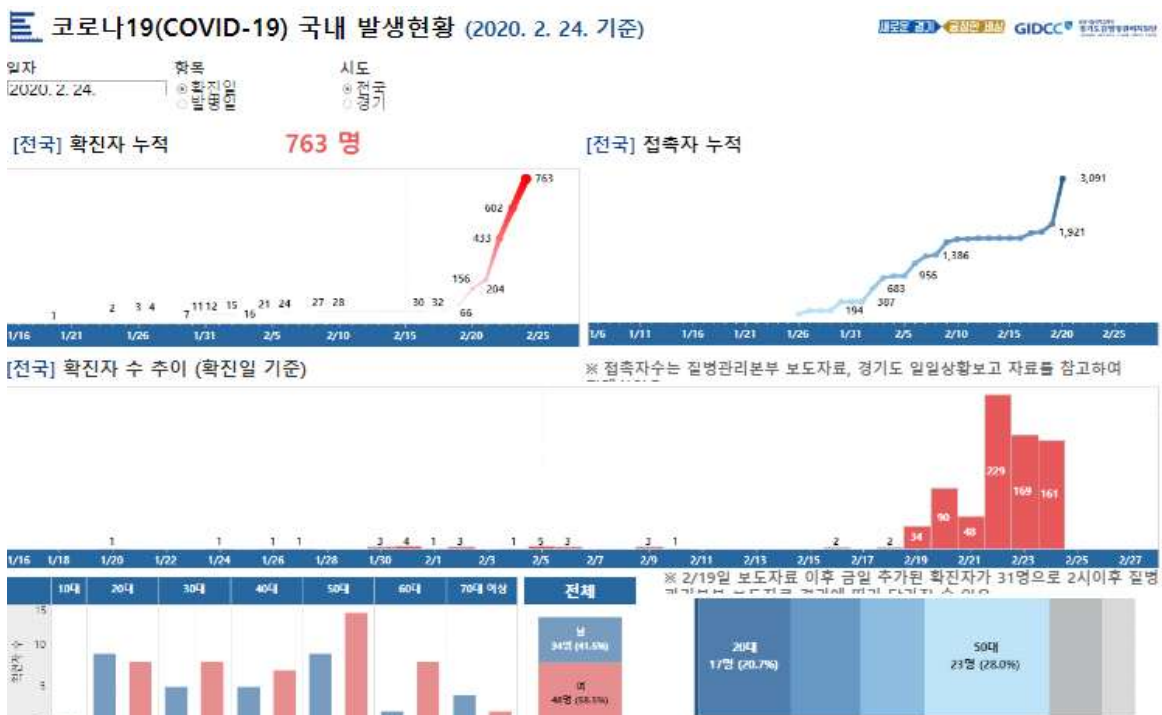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 활용 방법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http://www.gidcc.or.kr>) 홈페이지에 오시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현황(매일 업데이트)

- 전국 및 경기도의 최신 발생현황, 확진자 역학조사 요약, 검사현황, WHO상황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지침 및 참고자료 모음
 - 배포되는 대응지침과 관련지침, 참고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출처 | GIDCC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6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 \(5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용\) \(5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참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 \(5판\) 주요 개정사항](#)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선별진료소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 - 선별진료소](#)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검사 안내](#)(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의료기관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관리-병원급 의료기관](#)(질병관리본부)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관리-의원급 의료기관](#)(질병관리본부)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안내사항 \(5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참고] [중국 외 국가 의사환자 분류 시 참고 사항](#)(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참고] [신종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자체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참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 일단위로 업데이트하는 국외와 국내 발생현황, 이슈와 참고자료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COVID-19 Daily Reports

총3건 / 금일: 0건	검색 <input type="text"/>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3호	2020-02-22 17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2호	2020-02-21 6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1호	2020-02-20 9

④ 보호복 착용의 Level D 실습 교육영상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제작한 보호복 착용의 Level D 실습 교육영상(20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a video gallery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search and filter options.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grid of video thumbnails. The video titled "보호복 착용의 Level D 실습" (Level D Practical Training for Wearing Protective Suits) is highlighted with a red border. Below the grid is a navigation bar with page numbers 1, 3, 4, 5, 6, 7, 12. The number 5 is highlighted in a red box, indicating the current page.